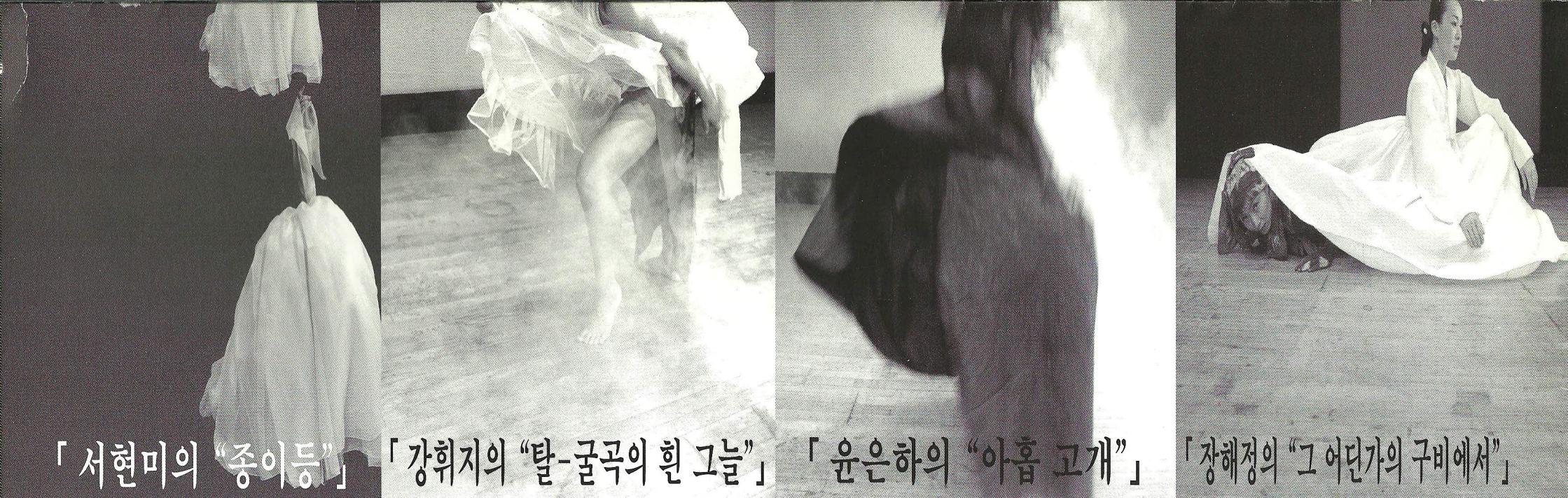


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

2005. 한여름밤의 품 작품전

“生이 간직한 불멸의 속성 – 아득함”





「서현미의 “종이등”」

「강휘지의 “탈-굴곡의 흰 그늘”」

「윤은하의 “아홉 고개”」

「장해정의 “그 여인가의 구비에서”」

2005. 8.25 (목) 19:30 문화회관 중극장

- 무용감독: 홍기태 (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)
- 훈련지도: 이운혜
- 의상: 김효은
- 영상: 꽈중필
- 기획: 박소윤      · 홍보: 김태훈      · 소품: 안정숙
- 조명: 박동찬      · 무대: 박태문      · 음향: 이상기

관람권 5,000 원 예매처

남포동/ 문우당서점 (버스정류소 앞 245-3843)

영광도서/ (롯데 백화점 건너편 816-9500)

해운대/ 해운대약국 (해운대시장 입구 752-0100)

광복동/ 국도레코드 (로얄호텔 옆 247-4240)

금정/ 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(부산대 앞 518-0686)

서면/ 동보서적 (서면 제일은행 옆 803-8000)

대연동/ 면학도서 (경성대 앞 623-9404)



서현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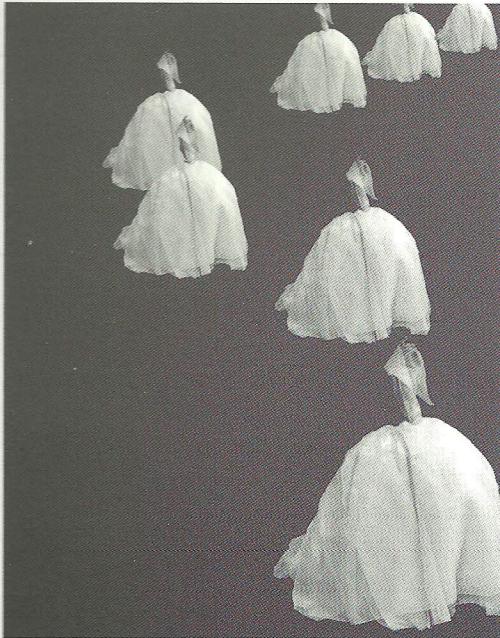
- 부산여자대학교(연, 신라대학교) 전교 수석 졸업
-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
- 1998 서현미의 춤 개인공연
- 2005 장래운 · 서현미의 춤 개인공연
- 주요 안무 · 춤연작  
〈무정빛 아늘 아래...〉, 〈여기 그리고 지금〉
- 연, 부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  
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 
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전수자

강휘지

- 부산여자대학교(연, 신라대학교) 무용학과 졸업
-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
- 주요 안무 · 춤연작  
옹기태 무용단 공연 춤연  
서지영 무용단 공연 춤연  
〈젊은 품꾼 9인전 "깥힌 봄바람"〉  
〈空〉  
〈清空- 그 어려로운 몸서리〉
- 연, 부산시립무용단 단원



## 서현미의 “종이 등”



- 안무 · 춤연 : 서현미
- 우정출연 : 장래운(수석), 오숙례, 이경연
- 스텝 : 김진영, 김기원

서산에 해가 기울면  
차 향기 내뿜는 수목의 자태에 취한 듯  
종이등이 흔들린다  
바람이 불때마다  
흔들리는 지구처럼

그 어딘가  
들려오는 산사의 종소리 ...  
아득히 피어오른는  
숨쉬는 생명이여.  
등그런 종이등이여.

대숲에 이는 바람에  
창호지 덧문 닫고 조금씩 내딛는다  
존재의 바스락거림으로  
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 
나, 흔들리려다

## 강휘지의 “탈-굴곡의 흰 그늘”



- 안무 : 강휘지
- 춤연 : 강휘지, 김경마
- 특별출연 (아쟁) : 권예정(부산시립국악관연악단 부수석단원)
- 악자 : 김미란(장고), 어태성(북), 김윤호(양의)
- 대본 · 연출 : 황해순 (부산예술대학 이벤트연출과 교수)
- 무대 디자인 : 김유리라 (경성대학교 환경디자인과 출강)
- 스텝 : 권봉정, 이정인

나뭇잎 하나가  
벌레 먹어 열관이 다 보이는 나뭇잎 하나가  
물 속이 얼마나 깊은지 들여다보려고  
저 혼자 물 위에 내려 앉는다.

나뭇잎 하나가  
삶의 무게만큼이나 가벼운 나뭇잎 하나가  
한줄기 강이 되어  
저 소리 없는 흐름에  
머리 풀고 나란히 흐른다.



윤은하

-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
-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
- 주요인부 · 출연  
2003. 우리춤 산책〈삼도 열장고〉공연  
시와 춤과의 만남 <작은 가시에 펼려 말문이 트이다>
- 2004. 우리춤 산책〈소고김〉공연
- 특별출연  
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18회 정기공연 <춘무>  
부산시립교향악단 제400회 정기공연 <까르미나브라나>
- 연, 부산시립무용단 단원

장해정



-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졸업
- 이매방의 춤 '외길 인생' 출연(2001.12)
- 김명자와의 춤 '일심' 출연(2002.11, 2004.9)

연,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역 단원  
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  
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전수자

## 윤은하의 “아홉고개”



- 안무 · 출연 : 윤은하
- 특별연주 : 성연우
- 음악 : 노은석
- 무대 : 오정국
- 드레스 : 이현숙, 이현주

아홉...

쌓아 놓았기에 넉넉하고  
보내버린 시간만큼 어전하다.  
치열하게 살아온 스물아홉 개의 주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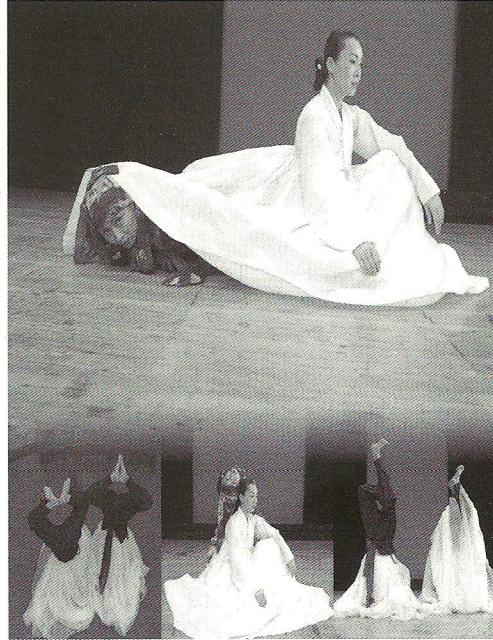
나이..

강물이 흘러도 한 풍경이듯  
깊어져 가는 마음은  
언제나 처음이다.

여짜...

서른 고비 마루에 서서  
빛나는 짜아를 단단히 새겨낸다.

## 장해정의 “그 어딘가의 구비에서”



- 안무 : 장해정
- 출연 : 김병주(부수역), 김동숙, 정진희, 정은정  
전혜련, 안주희, 강모세, 이창규, 장해정
- 드레스 : 이성원(부수역), 김주연
- 대본 · 연출 : 왕해순(부산예술대학 이벤트연출과 교수)
- 음악 : 이세호 (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)
- 악자 : 죄의옥, 김윤호
- 무대 디자인 : 김유리라 (경성대학교 원경디자인과 졸업)

고개를 넘는다.  
구름을 밟고 선다.

한없는 저승길을  
신명 타고 넘어간다.

고개를 넘는다.  
구름마저 걷어찬다.

끝 모르는  
없는 길을 홀로 간다.

저 멀리,  
자그마한 꽃상여가  
빛 속으로 빨려든다.